

방송대 간호학생의 교육요구 및 효율적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이상미* · 김영임* · 이선옥* · 근효근**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방송대학교의 간호학 전공은 3년제 간호전문대학 졸업자들에게 학사과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이는 3, 4년제로 이원화되어 있어 간호사의 출발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현 간호교육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 발돋움이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육목표는 일반 4년제 간호대학에 준하는 또는 능가하는 교육을 통해 간호계의 지위향상은 물론 우리 방송대 학생들이 갖는 간호계내에서의 자긍심을 앙양하는 것이다.

간호학 전공은 1992년 1,000명 정원으로 개설되어 1994년에 첫 졸업생으로 282명을 배출한 이후 1998년 2월까지 총 3,900여명의 간호학사를 배출하였다. 간호계내에서는 매년 4년제 일반대학으로부터 간호학과와 3년제 전문대학으로부터 전문학사가 1:6의 비율로 배출되고 있다. 전문학사는 향후 방송대 학사의 잠재적인 수요자임을 감안할 때 방송대 졸업 간호학사의 간호계 내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4년간의 학생 편입실태를 보면 간호학전공 학

생은 96% 이상이 보건의료 및 간호계에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 전문학사를 가지고 간호계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므로 학문과 실무의 연결이 이루어진 학사교육을 받아 질적으로 성장한 상태에서 간호계에 합입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추후 연간 배출되는 일반대학 간호학사의 증축이 될 방송대 간호학생의 발전은 방송대의 발전인 동시에 간호계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중요도를 감안하여 방송대 간호학전공에서는 1996년 학과현안사업의 일환으로 “방송대 간호학 학생들의 교육요구 및 만족에 대한 연구”(이선옥, 김영임, 이상미, 1996)가 실시되어 부족하나마 간호학전공 학생들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학사로서의 긍지, 졸업후의 진로등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개개인의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학사생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방송대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정보수용 및 학생들간의 유대감 형성이 또한 중요한 토대가 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없이 개별적인 학습방법만을 고수하고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잦은 휴학과 미등록상황이 빈번한 실정이다.

* 한국방송대학교
** 대한간호협회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방송대 간호학전공 학생들의 현황 및 지원동기에 대한 변화양상을 비교하고 지역별 학생회조직 및 추후 네트워크 형성에 관련된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보다 견고한 지역연결망 형성과 지속에 초석이 되고자 실시되었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1997년 10월에 일괄적으로 전국 각 지역의 학생대표에게 발송되어 지역에서 가능한 많은 학생이 모일 수 있는 일정에 맞추어 실시된 후 우편으로 수거되었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본 연구 중 학생현황부분은 1996년 2월 【방송대 간호학전공 학생의 교육요구 및 만족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및 논의부분에 '96년 이후의 자료를 연도별 및 학기별로 추가 정리한 것으로, 동일한 문항에 대한 결과는 비교

분석하여 종합하였다.

- 2) 실제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수는 분석에 포함될 수 없는 320부를 제외한 1,505부로서 전체 등록생의 26.7%에 해당하는 것이다(회수율: 33.4%). 통계에 사용될 수 없는 320부 중에는 대구·경북 지역의 설문지가 다량 포함되었다.
- 3) 분석은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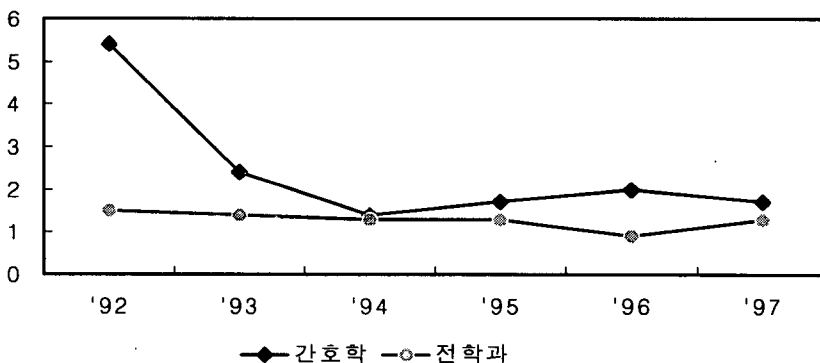
1. 학생현황분석

1) 편입지원 양상

'92년부터 시작된 방송대 간호학 전공의 연도별 정원과 지원율은 <표 1>과 같다. 개설 첫해인 '92년도는 학사과정에 대한 염원을 갖고 있던 학생들의 적체현상을 반영하듯 지원자가 몰려 5.4:1이라는 높은 경쟁율을 나타냈으며 정원수가 2,500

<표 1> 연도별 입학 경쟁율(3학년 편입생 대상)

구분	연도	'92	'93	'94	'95	'96	'97	'98
간호학	정원(명)	1,000	1,000	2,500	2,500	2,500	2,500	2,500
	지원(명)	5,435	2,395	3,571	4,219	5,006	4,298	3,854
	경쟁율	5.4:1	2.4:1	1.4:1	1.7:1	2.0:1	1.7:1	1.5:1
전학과	정원(명)	20,655	22,527	30,915	34,595	48,938	48,012	
	지원(명)	30,485	31,188	38,430	39,033	46,405	38,241	
	경쟁율	1.5:1	1.4:1	1.3:1	1.3:1	0.9:1	0.8:1	



<그림 1> 연도별 입학 경쟁율(3학년 편입생 대상)

명으로 증원된 '94년도에도 1.4:1이라는 경쟁을 나타냈다. '93년도부터 편입지원자 수는 계속 증가되어 왔으나, 간호전문대학의 증설 및 증원양상을 볼 때 우리대학의 지원자 수는 계속 증대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과는 달리 '97년부터는 다소 경쟁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대학 학점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합격 가능하다는 정보노출과 방송대 외에도 전문대학 졸업자들을 위한 학사과정을 도입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어 지원자가 수용대학으로 분할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학과 편입생 지원 경쟁율에 비하여는 지속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2) 등록현황

재학생의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표 2>에서와 같이 개설 첫학기인 '92년도에는 95.3%라는 높은 등록률을 보였으나 연도가 지나면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년도에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누적되고 해당년도의 편입생들만을 통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연도별로는 1학기보다 2학기에 등록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학점이수제도 경향이 학기제가 아닌 통년제와 유사하여 1학기 과목을 미이수하는 경우 다음연도 1학기에 맞추어 재등록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방송대 전체 등록률이 45%~66% 범위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간호학전공 학생들의 등록률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매년 방송대 전체 등록률이 큰 기복없이 일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간호학전공의 등록률은 '96년도 이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타대학의 학사과정 설립이 지원율에 미친 영향과 동일한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1학기 등록대비 2학기 등록률은 매년 80%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표 2> 연도별, 학기별 등록률

학과	연도	'92		'93		'94		'95		'96		'97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간호	A	1,050	999	2,047	1,990	4,060	4,041	6,563	5,822	8,296	7,170	8,428	7,790
	B	1,001	773	1,726	1,454	3,575	2,935	4,832	4,061	5,609	4,736	5,643	4,630
	B/A	95.3	77.3	84.3	73.1	88.1	77.2	73.6	69.8	67.6	66.1	67.6	59.4
	D/C	81.1		87.0		82.4		94.8		97.8		88.7	
전체	B/A	54.6	46.7	57.1	49.1	66.3	45.0	50.5	43.6	55.0	45.7	52.5	43.6
	D/C	88.5		86.0		67.9		86.3		83.1		83.0	

A: 등록대상자(명), B: 등록생(명), C: 1학기, D: 2학기, B/A: 등록비율(%), D/C: 1학기대비 2학기 등록률

3) 연령 분포

재학생의 연령분포는 '92-'93년도에는 25세 미만이 각각 48.5%와 46.3%로 가장 높았고 '94년도 부터는 26-30세 미만이 가장 높아 점차 입학생의 연령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분포율도 '96년도 후로는 40%를 상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20대 연령층이 전체 학생의 2/3 정도를 계속하여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6세 이상의 고령 입학생의 비율은 '92년도의 4.4%에서 '95년도의 0.9%로 낮아지다가 '96년부터 더

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취업 현황

활용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학생의 취업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간호학전공 학생의 약 93%는 취업하고 있었다(<표 3>). 방송대 전체 취업율인 94.7%('97.1학기 등록통계자료: 등록생 208,935명중 취업생 198,434명)와 비교하여 취업자의 비중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중에는 의료기관이 전공의 특성상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공

〈표 3〉 연도별 학생 취업현황

연도	직업 농·상 수산업	공무원	직업군인	교원	회사원	의료기관	기타	주부무직	계
'93	7 (0.4)	191 (11.1)	8 (0.5)	181 (10.5)	11 (0.6)	1,211 (70.2)	60 (3.5)	57 (3.3)	1,726명 (100%)
'94	11 (0.3)	401 (11.2)	18 (0.5)	345 (9.7)	23 (0.6)	2,536 (70.9)	75 (2.1)	166 (4.6)	3,575명 (100%)
'95	9 (0.2)	515 (10.6)	18 (0.4)	441 (9.1)	37 (0.8)	3,518 (72.8)	67 (1.4)	227 (4.7)	4,832명 (100%)
'96	3 (0.1)	583 (10.4)	10 (0.2)	572 (10.2)	47 (0.8)	4,056 (72.3)	112 (2.0)	226 (4.0)	5,609명 (100%)
'97	3 (0.1)	584 (10.3)	8 (0.2)	566 (10.0)	57 (1.0)	4,063 (72.0)	174 (3.1)	188 (3.3)	5,643명 (100%)

무원 및 교원(양호교사)으로 매년 일정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볼 때 의료기관은 등록학생의 70%정도, 공무원은 10-11%, 교원은 9-10% 정도였다.

5) 졸업생 현황

연도별로 졸업생은 '94년에 282명, '95년에 459명이었으며 '9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운 졸업생수의 증가가 있었다. '97년도 이후로는 1,000명을 크게 상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방송대 간호학사는 일반대학 간호학과 졸업생을 더욱 앞설 전망이다<표 4>.

〈표 4〉 연도별 졸업률

연도	대학 4년제대학 졸업생(명)	전문대학 졸업생(명)	방송대 졸업생(명)
'94	861	5,565	282
'95	898	5,543	459
'96	899	5,485	848
'97	1,039	5,858	1,242

2. 조사자료 결과

* () : '96년 자료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3학년이 58.9%(54.7%)였고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15.4%(25.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99.8%(99.7%), 결혼상태는 미혼이 55.8%(56.6%)로 우위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26-30세가 38.4%(41.2%)로 20-30세의 연령이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젊은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학력은 전문대 졸업자가 97.5%(97.5%)였으며 방송대 타학과 졸업은 2.3%(2.2%)였다. 이러한 결과는 '96년 자료집에 제시된 결과와 우위를 차지하는 항목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표 5>.

〈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 목	실수 (명)	백분율 (%)
학 년	3학년	879 58.9
	4학년	576 38.6
	기타(재수강자)	38 2.5
	무응답	12
성 별	남	3 0.2
	여	1,501 99.8
	무응답	1
결혼상태	미혼	837 55.8
	기혼	664 44.2
	무응답	4

〈표 5〉 계속

항 목		실수 (명)	백분율 (%)
연 령	25세이하	376	25.0
	26-30세	578	38.4
	31-35세	277	18.4
	36-40세	159	10.6
	41-45세	97	6.4
	46세이상	18	1.2
무응답			
최종학력	전문대졸	1,458	97.5
	대졸 (방송대타학과포함)	34	2.3
	대학원졸	3	0.2
	무응답	10	
	계	1,505	100.0

대상자의 취업현황을 보면 〈표 6〉에서 나타난 것처럼 근무처는 병원이 68.4%(61.6%)로 가장 높았고, 학교가 21.0%(16.9%)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전체 학생의 95% 이상이 의료기관 및 전공과 관련된 계통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 근무년수는 1년미만이 89.5%(3.4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96년도 자료 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표 6〉 대상자들의 취업특성

항 목		실수 (명)	백분율 (%)
근무처	병원	947	68.4
	학교	290	21.0
	보건소, 진료소	86	6.2
	기타	61	4.4
	무응답	121	
직장근무 연수	1년미만	1,347	89.5
연수	1년이상-3년미만	92	6.1
	3년이상-5년미만	28	1.9
	5년이상-10년미만	22	1.5
	10년이상	16	1.1
	무응답		
계		1,505	100.0

2) 입학관련 사항

지원동기와 목적에 관한 8개의 문항을 5단계로 평가한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전체 방송대학

〈표 7〉 지원동기와 목적

항 목	아주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	642 (43.0)	597 (40.0)	206 (13.8)	30 (2.0)	18 (1.2)	1,493 (100.0)
학비가 적게 들어서	374 (25.1)	592 (39.7)	332 (22.2)	136 (9.1)	59 (4.0)	1,493 (100.0)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1,058 (70.7)	343 (22.9)	71 (4.7)	12 (0.8)	12 (0.8)	1,496 (100.0)
전문지식을 얻기 위해서	460 (30.8)	653 (43.7)	335 (22.4)	30 (2.0)	16 (1.1)	1,494 (100.0)
대학에 대한 동경때문에	59 (4.0)	175 (11.8)	398 (26.9)	476 (32.1)	373 (25.2)	1,481 (100.0)
취업, 승진, 전직을 위해서	188 (12.7)	460 (31.0)	396 (26.7)	258 (17.4)	183 (12.3)	1,485 (100.0)
진학(대학원, 편입) 등을 위해서	612 (41.1)	571 (38.3)	208 (14.0)	65 (4.4)	33 (2.2)	1,489 (100.0)
가치있는 여가선용을 위해서	217 (14.7)	474 (32.0)	437 (29.5)	217 (14.7)	136 (9.2)	1,481 (100.0)

교 편집생들과의 비교를 위하여 동일문항을 선택하여 분석한 “1997학년도 신·편집생 실태조사(구재옥 외, 1997)”의 내용을 함께 제시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아주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가 70.7%로 가장 많았고,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43.0%)”, “진학(대학원, 편집) 등을 위해서(41.1%)” 순이었다. 전체학생의 경우는 “전문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29.5%로 가장 높았으며 “진학(대학원, 편집) 등을 위해서(20.8%)”와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19.8%)”의 순이었다(표 7-1).

같은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경우는 “대학에 대한 동경 때문에”가 25.2%로 가장 많았고 “취업, 승진, 전직을 위해서(12.3%)”, “가치 있는 여가 선용을 위해서(9.2%)”의 순이었다(표 7-2). 전체학생의 경우도 “대학에 대한 동경 때문에”가 32.1%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취업, 승진, 전직을 위해서(17.3%)”와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서(9.1%)”의 순으로써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라는 항목에 부정적 응답을 한 경우도 상당부분 차지하였다.

이상으로 간호학전공 학생들은 취업이나 승진과 같은 개인적인 목적달성이나 방송대의 특성이 반영된 시간절약 측면에서의 여가를 활용한다는 의미보다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간호전문인으로써 필요한 지식습득과 보다 계획적인 삶을 설계하려는 목적으로 지원함을 알 수 있다.

〈표 7-1〉 “아주 그렇다”로 답한 상위 3위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70.7%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	43.0%
진학(대학원, 편집) 등을 위해서	41.1%

〈표 7-2〉 “전혀 그렇지 않다”로 답한 상위 3위

대학에 대한 동경 때문에	25.2%
취업, 승진, 전직을 위해서	12.3%
가치있는 여가선용을 위해서	9.2%

한편 연령에 따른 지원동기와 목적의 차이를 카이제곱검정한 결과 “대학에 대한 동경 때문에(표 7-3)”, “취업, 승진, 전직을 위해서(표 7-4)”, “진학(대학원, 편집) 등을 위해서(표 7-5)”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1$). 또한 같은 문항에 대한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는 각 항목마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대학에 대한 동경 때문에($\chi^2 = 9.53, p = 0.049$)”, “취업, 승진, 전직을 위해서($\chi^2 = 12.36, p = 0.015$)”, “진학(대학원, 편집) 등을 위해서($\chi^2 = 11.07, p = 0.026$)”, “가치있는 여가선용을 위해서($\chi^2 = 10.51, p = 0.033$)” 항목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또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p = 0.006$), 학비가 적게 들어서($p = 0.005$),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서($p = 0.003$), 전문지식을 얻기 위해서($p = 0.000$) 등의 항목도 각각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7-3〉 연령별 지원동기 : “대학에 대한 동경때문에”

연령 \ 응답	아주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5세 이하	11(18.64)	40(22.86)	97(24.37)	132(27.73)	94(25.20)
26-30세	20(33.90)	64(36.57)	145(36.43)	200(42.02)	137(36.73)
31-35세	10(16.95)	35(20.00)	61(15.33)	80(16.81)	87(23.32)
36-40세	6(10.17)	21(12.00)	53(13.32)	38(7.98)	38(10.19)
41-45세	9(15.35)	12(6.86)	36(9.05)	23(4.83)	15(4.02)
46세 이상	3(5.08)	3(1.71)	6(1.51)	3(0.63)	2(0.54)
계	59(100.0)	175(100.0)	398(100.0)	476(100.0)	373(100.0)

$\chi^2 = 47.60, p = 0.000$

학년별(재수강자 포함)로 지원동기와 목적을 차이검정한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라는 항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는데($p=0.001$), 이는 재수강자와의 견해 차이가 나타난 결과로서 재수강자는 일하면서 공

부할 수 있다는 것에 회의적임을 알 수 있었다.

지원한 동기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항목은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서”가 34.1%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전체학생의 경우는 “전문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29.5%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그림 2).

〈표 7-4〉 연령별 지원동기 : “취업, 승진, 전직을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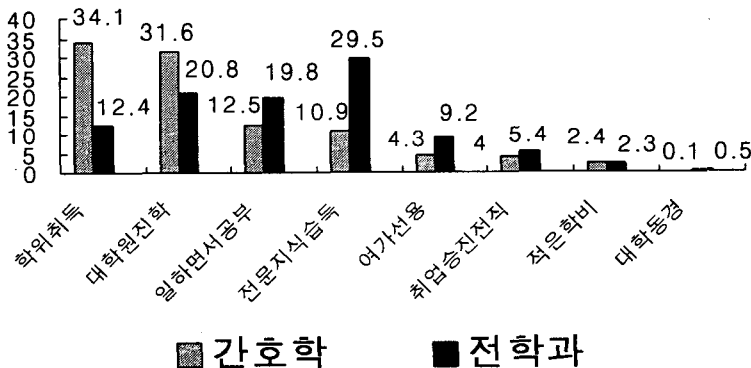
연령	응답				
	아주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5세 이하	49(26.06)	118(25.65)	104(26.26)	61(23.64)	41(22.40)
26-30세	67(35.64)	182(39.57)	160(40.40)	110(42.64)	51(27.87)
31-35세	45(23.94)	95(20.65)	55(13.89)	43(16.67)	35(19.13)
36-40세	17(9.04)	34(7.39)	46(11.62)	28(10.85)	32(17.49)
41-45세	8(4.26)	24(5.22)	28(7.07)	14(5.43)	21(11.48)
46세 이상	2(1.06)	7(1.52)	3(0.76)	2(0.78)	3(1.64)
계	188(100.0)	460(100.0)	396(100.0)	258(100.0)	183(100.0)

$\chi^2=43.50$, $p=0.002$

〈표 7-5〉 연령별 지원동기 : “진학(대학원, 편입) 등을 위해서”

연령	응답				
	아주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5세 이하	155(25.33)	140(24.52)	60(28.85)	16(24.62)	4(12.12)
26-30세	236(38.56)	234(40.98)	71(34.13)	25(38.46)	9(27.27)
31-35세	125(20.42)	104(18.21)	37(17.79)	6(9.23)	2(6.06)
36-40세	55(8.99)	66(11.56)	18(8.65)	8(12.31)	9(27.27)
41-45세	37(6.05)	25(4.38)	16(7.69)	8(12.31)	7(21.21)
46세 이상	4(0.65)	2(0.35)	6(2.88)	2(3.08)	2(6.06)
계	612(100.0)	571(100.0)	208(100.0)	65(100.0)	33(100.0)

$\chi^2=65.05$, $p=0.000$



〈그림 2〉 지원동기중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선택된 정도

위에서 제시한 방송대 간호학전공 학생의 지원 동기 및 목적양상을 종합해 보면, 가정과 직장의 병행이라는 개인적 환경요건을 고려한 상황에서 학사학위 취득 및 진학과 같은 전문인으로서의 자격증대와 지식함양에 가장 큰 동기를 두고 있으며, 실제 높은 등록률과 졸업률을 나타냄으로써 방송대 생활에 전반적으로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미래지향적인 의미에서 다소 진취적으로 볼 수 있으나 학사과정 중 방송대인으로서의 자긍심보다 개인적인 성취 동기가 앞서서 실제 방송대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의식들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확보방안이 요구된다.

3) 학습매체 관련사항

방송대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성과는 효과적인 매체활용을 통한 정보획득에 많은 부분이 좌우된

다. 그동안 학습에 필요한 보충자료와 정보출처에 대한 순위는 학우나 선배를 통해서(37.7%)와 학보(36.5%)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표 8). 컴퓨터를 통한 상담은 가장 낮은 이용율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하여 컴퓨터를 통한 보충학습 활용방법 중 여건이 안되는 상황적 요인에 44.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19.0%가 자료를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로는 학습교재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0).

〈표 8〉, 〈표 9〉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학습매체는 대부분 학우·선배와 같은 간접적인 인적자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첨단매체를 지향하는 방송대 본연의 의도와 동떨어진 학습방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과차원 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생회가 함께 매체이용에 대한 홍보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

〈표 8〉 보충자료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효과적인 정보출처

항 목	1 순위		2 순위	
	실수(명)	백분율(%)	실수(명)	백분율(%)
교수	27	1.8	6	0.4
학우, 선배	563	37.7	190	13.8
학생회	22	1.5	19	1.4
스터디그룹	57	3.8	44	3.2
지역학습관	118	7.9	87	6.3
컴퓨터를 통한 상담	11	0.7	7	0.5
시중출판사 등 시설단체	339	22.7	309	22.5
학보	298	19.9	502	36.5
전혀 이용할 필요성이 없어 혼자 한다.	31	2.1	66	4.8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곳이 전혀 없다.	29	1.9	144	10.5
계	1,495	100.0	1,374	100.0

〈표 9〉 보충학습(PC통신) 활용방법

항 목	실수(명)	백분율(%)
직접 컴퓨터를 통해서 자료를 이용한다.	73	5.3
학우, 학생회, 시중 출판사 등을 통해서 자료를 간접 이용한다.	261	19.0
컴퓨터를 이용할 줄 알아도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142	10.3
이용하고 싶어도 컴퓨터를 이용할 줄 몰라 불가능하다.	224	16.3
컴퓨터를 이용할 줄 모르지만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66	4.8
이용하고 싶지만 컴퓨터가 없거나 연결이 안되는 등 여건이 안된다.	610	44.3
계	1,376	100.0

〈표 10〉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학습자료 선정

항 목	실수(명)	백분율(%)
학습교재	110	39.1
학보특강	53	18.9
PC통신 보충학습	34	12.1
지상강좌	44	15.7
기출문제집	40	14.2
계	281	100.0

육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4) 휴학 관련사항

방송대 재학생중 휴학경험이 있는 학생은 12.4%로 '96년 자료에 나타난 20.3%에 비하여는 감소하였으며〈표 11〉, 휴학이유로는 “직장이나 가정일 때문에”가 71.3%로 '96년 자료와 동일 수준이었다〈표 11-1〉. 이러한 결과는 96% 이상이 직장에 소속되어 있어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함에 따른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11〉 휴학경험 유무

항 목	실수(명)	백분율(%)
있다.	175	12.4
없다.	1,238	87.6
계	1,413	100.0

〈표 11-1〉 휴학이유

항 목	실수(명)	백분율(%)
학습내용이 어렵다.	1	0.6
학습하는 방법이 어렵다.	20	11.5
경제적으로 형편이 되지 않는다.	0	0
직장이나 가정일 때문에	124	71.3
기 타	29	16.7
무응답	1	
계	174	100.0

휴학을 하려고 했던 경험자는 41.0%를 차지하였으며〈표 12〉, 그 이유로는 “직장이나 가정일 때문에(61.8%)”가 “학습방법이나 내용이 어렵

다”라는 항목보다 우위를 차지하여 실제 휴학하는 경우와 동일한 순위를 보였다〈표 12-1〉.

이와 같이 휴학을 했거나 하려고 했던 이유가 “가정과 직장일 때문”이라는 부분은 간호학 전공만의 상황이 아닌 방송대 전체 학생들이 갖는 공통적인 불편요인이라고 볼 때 학생들의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학습방법의 제시 및 지지체계가 필요하다.

학년에 따른 휴학여부와 휴학을 계획했던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표 11-2, 12-2〉,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 검정에서는 실제 휴학을 했던 경험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표 11-2〉 학년에 따른 휴학경험의 차이

학년	3학년	4학년	재수강	계
있다.	82(47.40) (9.87)	79(45.66) (14.71)	12(6.94) (35.29)	173 (100.0)
없다.	749(60.94) (90.13)	458(37.27) (85.29)	22(1.79) (64.71)	1,229 (100.0)
계	831 (100.0)	537 (100.0)	34 (100.0)	1,402

$\chi^2=24.05, p=0.000$

〈표 12〉 휴학계획 경험 유무

항 목	실수(명)	백분율(%)
있다.	484	41.0
없다.	696	59.0
계	1,180	100.0

〈표 12-1〉 휴학을 하려고 했다면 그 이유

항 목	실수(명)	백분율(%)
학습내용이 어렵다.	35	7.2
학습하는 방법이 어렵다.	116	24.0
경제적으로 형편이 되지 않는다.	2	0.4
직장이나 가정일 때문에	299	61.8
기 타	32	6.6
계	484	100.0

〈표 12-2〉 학년에 따른 휴학계획 경험의차이

휴학경험	학년			계
	3 학년	4 학년	재수강자	
있 다.	293(61.17) (41.33)	167(34.86) (38.39)	19(3.97) (65.52)	479(100.0)
없 다.	416(59.94) (58.67)	268(38.62) (61.61)	10(1.44) (34.48)	694(100.0)
계	709 (100.0)	435 (100.0)	29 (100.0)	1,173

$\chi^2=8.45, p=0.015$

5)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의견

교수-학생간의 네트워크 구성에 대하여 38.5%가 들어 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네트워크 구성후 78.7%가 참여할 의도를 보였다(표 13, 13-1). 만약 네트워크이 구성된다면 참여하고자 하는 부분으로는 “학습이해도 향상(50.1%)”을 위한 부분과 “교수-학생간의 유대강화(37.0%)” 부분에 가장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표 13-2).

이상과 같이 네트워크 구성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다소 적었으나 구성된다면 참여하겠다는 동기가 높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 형성은 성공적인 학사과정을 완수하는데 필수적인 기본환경으로 자리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접근법이 요구된다.

〈표 13〉 네트워크에 대한 사전지식 유무

항 목	실수(명)	백분율(%)
네트워크구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549	38.5
네트워크구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876	61.5
계	1,425	100.0

〈표 13-1〉 네트워크에 구성에 대한 참여여부

항 목	실수(명)	백분율(%)
참여하겠다.	1,087	78.7
참여하지 않겠다.	295	21.3
계	1,382	100.0

〈표 13-2〉 네트워크 참여부분

항 목	1 순위		2 순위	
	실수(명)	백분율(%)	실수(명)	백분율(%)
학생회의 활성화	33	2.5	3	0.3
그룹스터디의 활성화	445	34.2	102	8.6
학습이해도 향상	653	50.1	306	25.8
학습포기방지	20	1.5	111	9.4
학생들간의 친목, 유대강화	50	3.8	121	10.2
교수와 학생간의 유대강화	87	6.7	438	37.0
지역학생회간의 유대강화	5	0.4	38	3.2
다른 지역 학생들간의 친목, 유대강화	4	0.3	20	1.7
재학생과 졸업생들과의 친목, 유대강화	6	0.5	46	3.9
계	1,303	100.0	1,185	100.0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방송대학교 보건위생학과(간호학전공) 학생들의 지원동기와 목적, 학습매체, 휴학관련 사항등 기본적인 실태를 '96년도 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학생들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추후 형성될 체계적인 연계망 수립에 초석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간호학전공 3, 4학년(재수강자 포함) 전 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출한 4,500명중 조사에 성실히 응한 1,5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본 학과에서 만든 구조화된 설문지를 우편발송하여 회수하였으며 '96년 자료집 및 방송대 전체 학생과의 비교를 위하여 한국방송대학교 연도별 등록통계자료집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서술통계, 카이제곱 검정, ANOVA로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지원동기와 목적을 묻는 질문은 공부하는 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내재적 동기와 다른 목적(진학, 직장 등)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외재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 사회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방송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학력 상승이나 대학의 졸업장과 같은 수단적인 측면보다는 일하면서 배운다는 태도로 지원하는 것이 방송대의 교육목적에 부합된다.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목적과 실제 간호학전공 학생들의 지원동기를 비교해 보면, 간호학전공 학생들의 지원동기와 목적은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서(70.7%)”,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43.0%)”, “진학(대학원, 편입)등을 위해서(41.1%)” 등으로 나타나 일반대학교 유사한 학사학위 취득에 가장 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학과와는 달리 이미 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학전공 학생들의

전공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연령에 따른 지원동기와 목적의 차이를 카이제곱검정한 결과 “학비가 적게 들어서”, “대학에 대한 동경 때문에”, “취업, 승진, 진직을 위해서”, “진학(대학원, 편입)등을 위해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같은 문항에 대한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 2) 학습매체에 관련하여 효과적인 정보출처를 묻는 질문에는 “학우·선배(37.7%)”와 “학보(36.5%)”를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정보획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를 통한 상담(0.7%)”은 가장 낮은 이용율을 보였는데, 보충학습 활용방법 중 컴퓨터를 이용할 여건이 되지 않거나(44.3%)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이용한다(19.0%)라는 항목에서 높은 반응을 보인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학습태도는 방송대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송매체 보다는 인쇄매체에 더욱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비공식적인 수업방식을 선호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구재욱 외, 1997).
- 3) 휴학에 관한 문항에 휴학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2.4%를 차지하였고 그 이유로는 “직장이나 가정일 때문에(71.3%)”가 “학습하는 내용이나 방법이 어렵다”라는 문항보다 우위를 차지하였다. 휴학을 계획하려고 했던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휴학경험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어 휴학을 하려고 했던 경험과 이유는 실제 휴학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교수-학생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의견으로 네트워크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 학생은 38.5%였으며 만약 네트워크이 구성된다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78.7%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참여부분으로는 “학습이해도 향상(50.1%)”과 “교수와 학생간의 유대강화(37.0%)”에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다.

참 고 문 헌

- 구재욱, 류한구, 양은주 (1997). 「1997학년도 신·편입생 실태 조사」. 학생생활연구소, 한국방송대학교
- 구재욱, 성기선, 송혜수, 유한구 (1997). 「방송대학 학생들의 학습활동 및 학업성취과정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소, 한국방송대학교.
- 이선옥, 김영임, 이상미 (1996). 방송대 간호학생의 교육요구 및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권, 75-94.
- 한국방송대학교 (1996). 「96학년도 제1학기 등록 통계」.
- 한국방송대학교 (1996). 「96학년도 제2학기 등록 통계」.
- 한국방송대학교 (1997). 「97학년도 제1학기 등록 통계」.
- 한국방송대학교 (1997). 「97학년도 제2학기 등록 통계」.
- 한국방송대학교 (1996). 「방송대 간호인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보건위생학과(간호학전공).
- 한국방송대학교 (1997). 「방송대학 통계연보」.

- Abstract -

Key concept : Educational media, Network

A Study on Education Need and Effective Network Formation for the KNOU Nursing Students

Lee, Sang Mi* · Kim, Young Im*

Lee, Sun Ock* · Geon, Hyo Geon**

This survey study was attempted for two purposes : 1) to grasp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KNOU) students' changing aspects

for their education need through comparison analyses with 1996 data ; 2) to establish foundation of the systematic network formation by investigating students' opinion about network framework.

Among randomly assigned 4,500 students, 1,505 KNOU nursing students who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collected by mail. For the comparison 1996 data were also us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and t-test.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admission purposes of the KNOU nursing students were "in order to get a bachelor's degree(70.7%)", "to do studying and working simultaneously(43.0%)", or "to be admitted for the graduate school (41%)" etc. Comparing the admission purposes by age, the investigator found 4 items which are "small amount of tuition", "graduate school admission", "aspiration for the university", "promotion or commencement of work"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hese 4 items were also found to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y marital status.
2. In relation to the learning media, the study showed most students(74%) got effective informations from the school newspaper(36.5%) or peer group(37.7%). The result showed that few students (0.7%) used the computer for communication. The research indicated that KNOU nursing students have tendency to rely on printed materials more than on broadcasting media. This is almost the same result as that of 1996.

*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 Korean Nurses Association

3. The results revealed that 12.4% of the respondents had ever experienced unregistration or temporary withdrawal. The most common reason for the unregistration was “due to family affairs or their job (71.3%)”. There were no change for this aspects with 1996.
4. As for the professors-students network formation, The result revealed that 38.5%

students among respondents had heard of the network formation. 78.7% of respondents, however, positively resoned that they would willingly participate in the networking if it is made. Especially the students showed much interest in “the improvement for the understanding of study” and “strengthening of the relations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